

전북, 해상풍력 선도지로 도약... 서남권 2.4GW 조성 본궤도

고창 해역 0.2GW 확산단지1 선정
1.3조 투입 에너지 사업 본격화
주민참여 확대·지역 수익 환원 구조
유지보수 등 인프라 연계산업 육성
부안 해역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산업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단지1 고창 0.2GW 해역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주)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받은 곳으로, 풍력발전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선정된 서남권윈드파워(주)



해상풍력-조감도

는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을 대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컨소시엄에는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디엔아이코퍼레이션, 그린종합건설(주), ㈜부강건설, ㈜세광종합기술단,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한전KDN과 중앙해양중공업(주)도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0억 원 규모로, 사업시행자에게는 향후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된다.

인허가 및 건설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이후 2050년 12월까지 20년간 상업 운전이 이뤄진다.

서남권윈드파워(주)는 올해부터 발전사업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단지배치 설계, 주민보상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익 환원을 위해 주민참여 비율을 최대치로 확보해 발전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항만인프라 조성 and 유지보수항 개발, O&M 장비 및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도는 이번 고창 해역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해역 등 추가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과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선정될 부안해역 사업자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이라며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발전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까지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국비 35억 확보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39개 시장에 대해 국비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비 35억원 포함 총 56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85억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다.

이번 공모 가운데 경북도는 '특성화시장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부문에서 5곳(20억원)이 선정됐다.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교체에 지원하는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서는 4곳(23억원)이 선정됐다. '시장경영 지원 사업 및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부문에서는 30곳(13억원)이 선정됐다.

/경북=김진수 기자

부산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42억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이 총 42억743만3000원(잠정)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자 8개 특광역시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이 같은 성과가 전년 하반기에 진행한 경품 이벤트가 주요한 역할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이벤트 기간인 지난해 10월16일~12월31일에만 전체 기부 인원(4만1849명) 중 과반수(2만9000여 명)가 동참했고 모금액은 29억6000여 만원으로 전체 실적의 약 70%를 차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함양군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유치

함양군이 남부권 산불 대응을 총괄하는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하면 봉전길 62번지 서하초등학교 봉전분교 부지에 들어선다.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본부로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 등 남부권 산불 예방·대응·상황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다.

이번 유치로 함양군은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함양군은 해당 부지를 활용한 센터 구축 계획으로 행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산불 대응 최적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문경공고 AI로봇 마이스터고 전환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 문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문경공업고등학교 AI 로봇 마이스터고 전환 선포식을 열고, 미래 로봇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선포식은 문경공업고가 기존 공업계 특성화고에서 AI 로봇 인재 퇴출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산업계가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환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경공업고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AI 로봇 특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4학급, 총 12학급 180명 규모의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한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집적화 가속

AI·스마트농업 기반 미래농업 선도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연계 추진
연구·실증·교육 융합 플랫폼 구축

해남군이 전국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농업연구단지가 AI·스마트 농업 기반의 미래농업을 이끄는 선도지구로 육성된다.

특히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내년 착공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춰 연구단지내 관련 시설들도 빠르게 집적화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농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앞당겨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공모 선정된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 착공, 2028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의 시급성에 따라 여타 공모사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영향 예측, 대응기술 개발 등을 총괄하는 거점기관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연관시설을 집적화해 국내 최대 규모 군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총 82ha 규모로, 1단지에는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농업 실증시험 기반시설 등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2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APC, 채소류 종자전문생산단지 등 시설들이 들어선다.

특히 교육 연구시설과 민간기업의 R&D시설, 마늘·고구마 육종시설 등이 추가로 조성되어 연구에서부터 현장실증, 기술보급, 교육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천, 화더코리아와 1000만불 투자유치

자동차부품 생산라인 구축

영천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화더코리아(유)와 1,000만불 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강상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왕밍 화더코리아(유)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더코리아(유)는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에 1,000만불을 투자해 도어핸들과 액추에이터 등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가 본격화되면 약 15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왼쪽부터 강상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유치본부장, 왕밍 화더코리아(유) 대표이사, 최기문 영천시장.

화더코리아(유)는 중국 최대 자동차 도어핸들 생산기업인 화더홀딩스그룹의 자회사로, 2021년 7월 설립돼 경기도 시흥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며, 자동 도어핸들과 액추에이터 등을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다.

/영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경남신보, 2조 보증·디지털 혁신 추진

디지털금융부 신설·맞춤형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올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포용적 금융'과 '디지털 혁신'을 양대 축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는 2026년 약 6만 8000건, 총 2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비용 완화를 위해 경남도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난해보다 726억원 늘린 약 52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단순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정책 개발 기관으로서 기능도 강화한다. 경남신보는 홈페이지 내 정책통계 센터를 구

축해 보증 공급 추이와 대위변제율 등 핵심 경영 지표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한다. 도민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포럼도 개최한다.

비금융 지원은 기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 진단 기반 창업 지원, 위기 징후 업체 집중 지원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 복지 상담 서비스를 소비 관리, 신용 회복, 가게 재정 진단 등으로 다각화해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주군, 농가소득·먹거리 복지 강화

577억 투입 농정시책 확대

울산 울주군이 올해 577억원을 투입, 군민의 먹거리 복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 시책을 확대한다.

군은 6월 농가 소득 안정에 265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에 140억원, 농업 기반 시설 확충에 160억원, 미래 농업 육성에 12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먹거리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둔다. 군 내 초등학교 12학년 2300명에게 국내산 과일을 주 12회, 연간 30회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외식업종 결제 금액의 20%를 지

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의료 취약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린다. 언양, 삼남·삼동, 웅촌, 상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과 지역농협, 병원이 협업체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을 제공한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 지원 인원도 400명에서 578명으로 확대한다. 짝수년도 출생 51~80세 농업 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며 2년 주기로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 검진과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